

◆ [Focus] 미, 중국 온라인 쇼핑 앱 Temu 규제 움직임

◆ [What's News]

- (투자규제) 미 상원, 해외투자 심사법안 NDAA 개정안으로 반영
- (금리) 미 연준(Fed), 7월 기준금리 0.25% 인상
- (반도체) 상무부·국방부, 미국 방위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합의서 서명
- (입법동향) 미 의회, 중국의 개도국 개발용자 영향력 제한 추진
- (통상일정) WTO, 향후 주요 회의 일정 공개

◆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FOCUS

(대중규제) 미, 중국 온라인 쇼핑 앱 Temu 규제 움직임

1. 개요

□ 중국 기반 온라인 쇼핑 앱 테무(Temu)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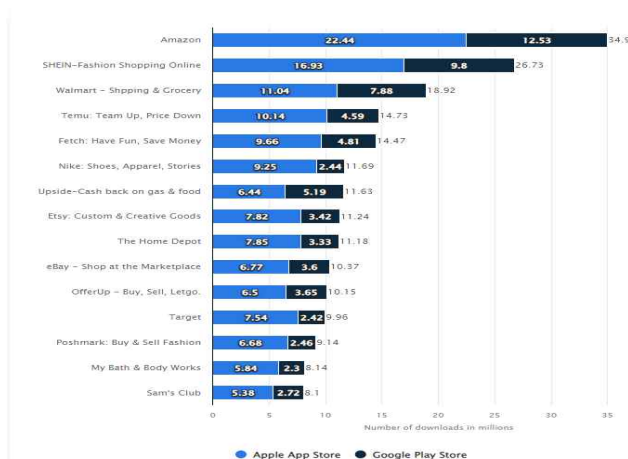
- '핀뉘뉘'社의 자회사 테무가 미·EU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, 국가 보안 및 데이터 전문가들은 테무의 데이터 보안 위험성에 대해 경고
 - 온라인 쇼핑 앱 테무는 핀뉘뉘를 소유한 중국 기업 PDD 홀딩스(PDD Holdings)가 개발했으며 운동화, 아동용 장난감, 카메라 등 생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에서 미국, 유럽 등으로 배송 판매
 - 테무는 초저가 전략을 내세워 미국, 유럽 등에서 아마존(Amazon), 알리익스프레스(AliExpress) 등과 경쟁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음.
 - 하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테무의 불투명한 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 관리 관행을 지적, 중국 당국의 사용 가능성 등 데이터 유출 우려 제기

2. 상 세

□ 중국 기업 테무(Temu)의 성장세

- 중국 핀뉘뉘의 자회사 테무, 미국·유럽 등에서 가파른 성장세
 - 테무의 모회사 핀뉘뉘는 상하이에 본사를 둔 농업 산업 기반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로, 미국의 테무 본사는 보스턴에 기반을 두고 있음.
 - 테무는 작년 9월 미국 내 출시 이후 기하급수적인 성장 기록 중이며, 4월부터는 벨기에, 프랑스, 독일, 폴란드, 영국 등 유럽 국가에도 출시
 - 테무는 구글 플레이에서 5천만 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고 벨기에, 프랑스, 이탈리아, 독일, 포르투갈 애플 앱 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정('23년 7월 기준)
- 미국 내 기존 쇼핑 앱 경쟁사인 중국의 쉬인(Shein)과도 호각세
 - 블룸버그 통신은 테무가 5월 카드 매출 기준 대비 미국 내 중국의 기존 패션 소매업체 쉬인의 매출보다도 20% 초과 달성했다고 보도
 - 앱토피아의 아담 블랙커(Adam Blacker)는 “테무의 성장세는 앱 설치 캠페인이나 광고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”며, “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속 초저가를 앞세운 테무를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”고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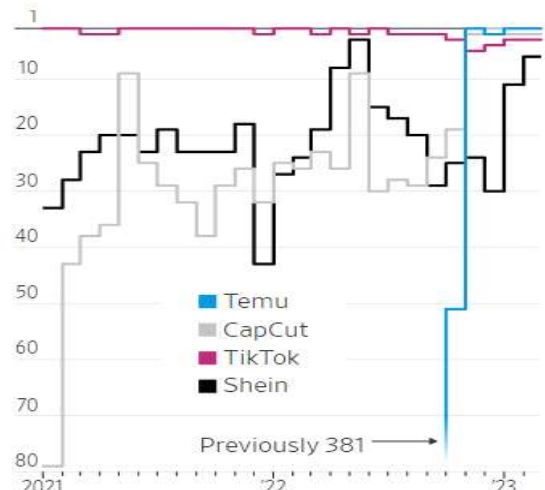
<미국 내 쇼핑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순위>



* 1위부터 아마존, 쉬인, 월마트, 테무 순

[자료: Statista (2022)]

<애플 앱스토어(ios) 내 중국 기업 앱 순위>



[자료: Data.ai, WSJ 인용]

□ 미국 내 관련 규제 동향 및 현지 반응

- USCC, 지난 4월 중국 기업 테무 및 쉬인과 관련해 미소기준 (De Minimis), 강제노동, 데이터 보안, 지식 재산권 침해 등 우려 지적
 -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(U.S.-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, USCC)는 4월 테무(Temu)와 쉬인(Shein)을 미소기준 악용, 제품 안전성 문제, 강제 노동, 지식 재산권 침해, 개인정보 보안 및 데이터 유출 등과 연관된 중국 기업으로 지목
 - USCC 보고서는 “이 두 기업의 상업적 성공은 기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신생 기업 모두 해당 모델을 모방하도록 장려해 미국 내 규정, 법률, 시장 접근 원칙에 위협과 도전이 된다”라고 지적
- 현지 언론은 테무의 데이터 관리 위험성 지적, 관련 규제 가능성 주목
 - 폴리티코는 7.24 보도에서 테무가 미국과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강경파 인사를 중심으로 서방의 데이터 보안 조사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
 - 애플은 테무가 애플의 의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고, 데이터 사용 방식에 대해 사용자를 오도했으며, 사용자에게 인터넷에서 추적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힘.
 - 사이버 보안 기업 NVISO의 애널리스트 제론 베커(Jeroen Becker)는 “테무 앱은 코드가 이해할 수 없도록 매우 복잡하게 짜여 있는데, 이는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”라고 의혹 제기
 - 리서치 컨설팅 로디움 그룹(Rhodium Group)의 레바 구존(Reva Goujon) 이사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개인정보가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‘악의적으로(nefarious)’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

※ 아직 유럽 내 테무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한 국가는 없음.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■ 자료원	인사이드(3.15), USCC(4.14), LA타임스(5.2), 로이터(6.16), 폴리티코(7.24)

□ (투자규제) 미 상원, 해외투자 심사법안 NDAA 개정안으로 반영

- (개요) 해외투자 심사 법안은 상원 국방수권법 내 개정안으로 반영(7.25)
 - 해외투자 심사 법안은 상원 국방수권법 1차 논의(7.18)에서 제외됐으나,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등의 지원으로 25일 최종 반영(91 vs. 6)에 성공
- (상세) 감시 품목 중 첨단 배터리(advanced battery) 제외
 - 통과를 위해 완화된 수정안이 표결될 전망이었으며, 공화당의 반대로 신고 의무가 부과될 7개 품목 중 첨단 배터리가 제외된 것으로 보도
- (전망) 하원 국방수권법과의 조정 절차 이후 최종안 공개 예정
 - 패트릭 맥헨리(R-NC), 앤디 바(R-Ky) 의원 등 하원 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준비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중 투자 금지 법안도 함께 모니터링 필요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준성
▪ 자료원	폴리티코(7.25 , 7.26)

□ (금리) 미 연준(Fed), 7월 기준금리 0.25% 인상

- (개요) 7.25~26 동안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 결과, 연준은 현행 기준금리에서 0.25% 인상된 5.25~5.5% 결정 발표
 - 작년 3월 금리 인상 개시 후 11번째, 이로써 기준금리는 근 22년 내 최고
 - 지난 6월 FOMC 시 금리 동결 이후, 국내 경제 효과(경제활동, 고용, 인플레이션 등)가 혼재하여 향후 추가 금리 변동 여부*는 불확실
- * 연말까지 3차례 FOMC 잔여 (9.19~20 / 10.31~11.1 / 12.12~13)
- (반응) 이번 없는 결정으로 시장 기대는 충족하면서도 추가 인상 여지 남겨
 -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“성장·물가·고용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주시할 예정”이라며,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

- 오후 3시 기준 △다우존스 상승(0.33%) △2년 만기 국채 수익률 하락(-0.68%) △달러 인덱스 하락(-0.23%) △국제유가 하락(-1.0%)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정민
▪ 자료원	연준 홈페이지(7.26) 월스트리트저널(7.26), 블룸버그 통신(7.26)

□ [반도체] 상무부·국방부, 미국 방위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합의서 서명

- (개요) 미 상무부와 국방부는 미국 반도체 방위 산업 기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서(MOA)에 서명(7.26)
 - 협약서는 CHIPS Act 내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부서 간 정보 공유 확대 및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한 투자 보장 내용 포함
- (상세) 반도체 공급망 촉진 및 중요 국가 안보 기술 지원 예정
 - 특히 CHIPS Act, 국방물자생산법(DPA), 방위·반도체 산업 기반 분석, 기금의 지속성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언급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한유림
▪ 자료원	미국 상무부(7.26)

□ [입법동향] 미 의회, 중국의 개도국 개발용자 영향력 제한 추진

- (개요) 미 의회, 미주개발은행 투명성법(Inter-American Development Bank Transparency Act) 상하원 동시 발의(7.25)
 - 해당 법안은 미 재무부에 2년마다 중국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 목록 등 중국의 IDB 내 활동 및 목적과 중국의 IDB 내 영향력을 감소시킬 미국의 실행 계획을 담은 보고서 발간 의무를 부여
- (상세) IDB 최대 출자국가인 미국의 의결권(약 30%) 등 적극 활용 주문
 - 팀 케인 의원은 중국기업의 IDB 사업에 낙찰 비중이 '19년에 1위를 차지하는 등 중국의 IDB 지분율(약 0.1%)에 비해 높다 주장

- '22년 중국과 중남미·카리브해 도서국가 간 교역 규모가 역대 최대인 약 미화 4,49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중국의 역내 영향력 증가
 - * 올 3월, 온두라스가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등 외교적 행보 확대
- 타 개발은행 등 중국의 개발 금융 분야에서의 영향력과 비중은 확대 추세
 - * 2017년 이래 중국은 세계 최대 공식 채권국으로 자리매김

-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장석일
- 자료원 | AP News(7.25), 팀 케인 의원실(7.25), 폴리τικο(4.10)

□ [통상일정] WTO, 향후 주요 회의 일정 공개

- (개요) 세계무역기구(WTO), 13차 각료 회의(MC13)까지의 세부 일정 공개
 - MC13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'23.10.23 개최될 고위 관리 회의와 의제가 채택될 '23.12 회의에서 MC13 세부 동향이 파악될 전망
- (상세) MC13 이전까지 총 6번의 회의가 진행될 예정
 - MC13의 주요 의제인 (1) 어업 보조금 억제 협정, (2) WTO 개혁 방안, (3) 최빈국의 개발도상국 격상 등과 관련해 논의할 전망

<23년 WTO 주요 회의 일정>

순번	일정	비고
1	23.9.25-9.26	무역 및 산업 정책 관련 WTO 개혁에 관한 비공식 회의 개최
2	23.10.10	대사급 비공식 회의를 통해 MC13 기대치 확인 및 조율
3	23.10.23-10.24	장관 또는 의사 결정권자가 포함된 고위 관리 회의 개최
4	23.11.1-23.11.2	일반이사회 회의 개최
5	23.11.28	무역협상위원회 회의 개최
6	23.12.14-12.15	MC13 최종 의제 채택 관련 일반이사회 회의 개최
7	24.2.26-2.29	UAE 아부다비 MC13 개최

[자료] 폴리τικο, "Roadmap for the Reform Ministerial"

-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준성
- 자료원 | 폴리τικο(7.26), 인사이드 트레이드(7.25)

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Federal Reserve Raises Interest Rates to 22-Year High (연준, 근 22년 내 최고 수준으로 기준금리 인상)</p> <p>파월 연준 의장, 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길을 보았다면서도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혀. 이번 베이비스텝 결정으로 기준 금리는 5.25%~5.5%로 인상</p>
The Washington Post	<p>Fed raises interest rates by another quarter-point, hitting highest level in 22 years in its fight to quash inflation (연준,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금리 0.25% 다시 인상... 근 22년 내 최고 기록)</p> <p>연준,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경기 침체 국면을 방지할 절묘한 균형을 찾고 있어. 한편, 연준은 연내 1회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을 시사</p>
The New York Times	<p>U.S Says Main Thrust of Ukraine's Counteroffensive Has Begun (미, “우크라이나의 본격적인 반격 이제 시작”)</p> <p>남부 전역에서는 포격전이 진행되는 가운데, NATO에서 훈련받은 병사들이 서방 진영의 기갑차량으로 무장한 채 우크라이나 남동부로 진격 중.</p>
CNN	<p>US and allies working with Ukraine on alternative routes to deliver grain, according to White House (백악관, “우크라이나와 함께 곡물을 운송할 대체 노선 탐색 중”)</p> <p>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파기에 따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체 곡물 운송로 탐색 중. 우크라이나산 곡물은 세계 곡물 공급망에 매우 중요</p>

* 미국 동부시간 7월 26일 16시 기준

Notice

주요 경제 · 통상 일정

7.26(수)	6월 신규 주택 판매(New home sales)
7.27(목)	6월 4주차 실업수당신청건수(U.S. Initial jobless claims)
7.28(금)	6월 소비지출 가격 지수(PCE index)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: [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22	희귀광물 갈륨·게르마늄 공급망 분석	2023.07월
US23-21	IPEF 4차 협상 주요 내용 및 현지 기관 분석	2023.07월
US23-20	최근 미국의 대중 수입 통계로 보는 변화	2023.06월
US23-19	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스 의견서 주요내용	2023.06월
US23-18	RE100, 회원사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 분석	2023.06월
US23-17	IPEF 5월 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6월
US23-16	美 화석연료 발전소 배출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5월
US23-15	6가지 통계로 보는 미 외국인직접투자(FDI) 동향 및 시사점	2023.05월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: [해드림 심층보고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2-기 획7	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	2023.01월
US22-기 획6	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·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 획5	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 획4	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	2022.11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: [유튜브 KOIRA TV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4 (2023.6.30)	 <p>전미자동차연구센터(CAR) '앨런 아메리' 대표 인터뷰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 경쟁과 향후 전망과 미래</p>	
코인시-13 (2023.6.26)	 <p>전 미국 국방부 안보 차관보 '켄달 스투리버' 인터뷰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재편!</p>	